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도

야고보서 5:13-20

정운돈 목사님

현장복음메시지 46과다. 주의할 점은, 여러분이 가르치려고 하면 안 된다. 증인이 되어야 한다. 많은 말을 할 필요도 없다. 제목과 본문을 보면 된다. 내가 기도하고 있는 제목 중의 하나가, 나도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수가 없는 것이 있다. 기도로 전쟁을 막은 것을 보았다. 6.25 때 B29가 폭격을 해야 하는데, 많은 조종사가 동시에 본 것이다. 구름 속에서 예수님의 형상을 보았다는 것이다. 그래서 폭격을 하지 않았는데, 그 덕분에 많은 피난민들이 죽음을 면했다고 한다. 여러분이 모두 하나님의 관심 속에 담기게 되기를 바란다. 믿음을 가지면 된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야의 이야기가 나온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우리도 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할 수 있는 사람 아닌가. 그렇게 우리와 똑같은데 가능했지 않나? 기도하니까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오고, 또 기도하니까 비가 오는 응답이 왔다. 많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다. 소수의 사람이다. 그 소수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한다.

서론

그 소수가 되려면 여러분이 의인으로서 복음이 확실해야 한다. 복음성구를 30구절 정도 외우면 구원이 확실하게 이해되고 누려진다. 이런 부분을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내용을 알고 외워야 한다. 창세기 1장 안에도 설교해야 할 부분이 굉장히 많다. 나는 수요일에 6개월 동안 창세기 1장만 설교했다. 창1:1 안에 하나님의 절대주권이 들어있다.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쓰여진 것을 보면, 그 속에 삼위일체의 비밀이 들어있다.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인간은 만나야 한다. 인간은 짐승과 왜 다른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창1:26-27). 인간에게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이 된 것이다. 이 원래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주셨다. 이런 식으로 깊이 들어가서 이해해야 한다. 30구절을 기계처럼 외우는 게 아니라 소화를 해야 한다. 답을 줄 수 있도록 이해해야 한다. 불신자들이 반박할 때 그 부분을 충분히 설명해 줄 수 있을 정도로 해 줘야 한다. 복음성구가 완전히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바란다. 이 30구절 속에서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있다. 100구절 정도 이해하고 암송하면 사역자가 된다.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다. 300구절 정도를 외우면 이단을 이길 수 있다. 지금 신자들은 삶에서는 천주교에게 지고, 성경 지식에서는 이단에게 지고 있다. 이런 의미를 알고 마음에 담으셔야 한다. 입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지 못했다. 레위기 27:2에, 사람을 재물로 대신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을 모르니까 딸을 결국 드렸던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잘못된 길로 가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 말씀을 정확히 알았을 때, 엘리야처럼 응답받는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믿어야 한다. 능력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엘리야의 시대는 어려운 시대였다.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두려움, 염려가 있다. 성경은 이런 문제를 엘리야가 똑같이 겪고 있었음을 알려준다. 악한 사회상과 난폭한 임금과 신하, 거짓 선지자들로 인하여 큰 어려움을 당한 엘리야는, 죽기를 구하는 자리에까지 갔었다. 이러한 문제를 만났던 엘리야는, 그러나 모든 문제를 기도로써 이겨낼 수 있었다. 오늘 우리는 어려움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를 알아야 하며, 또 어떤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인가를 알아야 한다.

우리의 환경과 조건도 정말로 어렵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엘리야가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환경이 그랬기 때문에 거룩한 선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다. 흐름 속에 있었을 뿐이다. 우리가 이단 되려고, 핍박받는 훌륭한 전도자 되려고 한 게 아니었다. 흐름 속에 있었을 뿐이다. 중요한 것은, 이 흐름을 이해하고 자기 것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엘리야, 엘리사, 오바다 뿐이었다는 것이다. 여러분이 그런 주역이 되시기를 축원한다. 우리는 너무도 놀라운 축복 속에 있다. 이것을 가지고 살려내야 한다. 한국교회를 살려내야 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환경을 만들었다. 그래서 엘리야는 집중했다. 하나님이 왜 이런 환경과 문제를 주셨을까? 나에게 주신 소명, 사명, 천명이 무엇일까? 이것을 집중적으로 생각했다. 거기에서 믿음이 생기고 사명이 생기니까 영적 서명이 된 것이다.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이다.

1. 그러면 어떻게 하면 능력이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는가?

(1) 믿음의 기도다. 믿음이 좋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불신자들에게서 들을 만큼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 믿음을 어디에서 보여주어야 하는가? 약 5:13, 고난당하는 것이 믿음을 보여줄 기회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감사하는 것이다. 즐거워하는 것이다. 기뻐하는 것이다. 짜증내지 않는 것이다. 어려움 앞에서 짜증내는 사람은 믿음 좋다는 이야기는 못 듣는다. 가족들도 감동시키지 못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히11:1).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데 나중에 보면 되어 있는 것이다. 그 일에 주역이 되는 것이다. 희미해서는 안 된다. 실상으로 바라볼 때 된다. 되게 되어 있다. 집중해서 어떻게 할지 24시간 생각했다는 것이다. 부족한 부분은 채워 나가고, 내가 해야 할 부분을 계속 생각했다는 것이다. 그러면 어려울 게 없다. 한 가지씩 해 나가면 거기에 도달하게 된다. 실상은 거저 되는 것이 아니다. 기도하다 보면 보인다. 막연히 해서는 다 박살난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여러분이 하나님께 정말 집중하게 되면 하나님은 당연, 필연, 절대적인 것을 보여주실 것이다. 당연히 해야 할 것을 하면 된다. 이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전도와 사업에도 그런 응답을 받아야 한다. 당연히 해야 할 것을 해야 한다. 나는 굿네이버스, 월드비전 능가하는 복지 선교를 하도록 기도하고 있다. 복음적인 복지를 해야 한다. 그 일을 위해서 해야 할 것을 하는 것이다. 급하게 할 필요도 없다. 당연히 해야 할 것을 성령인도 받으면서 해 나가는 것이다. 믿음이다. 이 믿음 속에 많은 것이 담겨있다. 이 응답을 누리시기 바란다. 응답이 클수록 힘든 일도, 갈등도, 흔들릴 일도 많다. 그때 믿음을 보아야 한다. 허상이 아닌 실상을 봐야 한다. 조금해서, 성질 때문에, 율법적인 고집 때문에 이것을 깨어 버리면 안 된다. 하나님이 원하시지도 않는데 입다는 자기가 말했으니까 해야 한다는 고집을 부린 것이다. 우리는 무슨 주장을 하더라도 말씀과 안 맞으면 바꿀 수 있어야 한다. 안 그러면 종교가 되어 버린다. 약1:3-8에 보면, 그래서 인내가 필요하다.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인내와 고난의 훈련을 시키신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좀 어렵고 힘들다고 쏟아 버리지 말고 참아라. 기다려라. 믿음의 사람이 되라. 시련과 시험 때문에 뒤집어지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한다. 1년이 지나도, 5년이 지나도 그 모습 그대로다. 박사학위를 받아도 그 체질, 그 성질이 그대로다. 그래서 안 되지 않나. 인내를 통해서 성숙해지고, 시련을 통해서 익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란다.

① 밑바닥 수준으로 계속 살지 말고 믿음의 사람이 되라. 고통 속에서 미소 지을 수 있는 사람, 그것으로 감동을 줄 수 있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으로 구원하셨다. 안 믿으면 구원도 축복도 못 받는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다 죄다.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해야 한다. 항상 기뻐하고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부정적인 것이 우리 에너지를

쏟으면 안 된다.

② 하나님은 반드시 신앙인, 믿음의 사람을 인도하신다. 인본주의를 쓸 필요가 없다. 잔머리를 쓰지 마라. 악인의 죄를 따르지 마라. 정치적인 수완을 부리지 마라.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서지 않는다. 겸손해져라. 주님도 발을 닦으셨는데 우리가 자존심 때문에 섬기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 깨뜨리고 섬기면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방법이다. 하나님의 방법이다.

③ 대표적으로 영적 질서와 핵심을 알았던 로마인 백부장이 있었다(마 8:5-13).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다. 하나님이 시키시면 그대로 되는 것이다. 이런 믿음의 모습을 후대에게 보여줘야 한다. “말씀 떨어졌잖아? 괜찮아. 문제 있어도 상관없잖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깨달은 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우리는 이미 성공했다. 그 가치와 비밀을 깨달으면 축복이 올 수밖에 없다. 나머지는 따라오게 되어 있다. 물질적, 사회적, 정치적인 축복이 다 필요하다. 왜냐? 세계를 살려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이 스위스, 독일 이길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 나는 그렇게 기도한다. 그렇게 믿는다.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축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한다.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을 붙잡았다(막5:25-35). 붙잡으면 치유된다는 믿음이 있었다. 안수도 필요 없다. 주님 붙잡으면 역사 일어날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한다. 지교회에서, 다락방에서, ‘내가 조금 믿었는데 하나님이 이 역사를 주셨어.’ 이렇게 되시기를 바란다. 믿는 여러분을 통해서 치유가 일어나기를 바란다. 믿음의 사람이 되라. 시간도 아깝고 할 일도 많은데 우리가 쓸데없는 일에 에너지 쏟고 세월 보내면 안 되지 않나? 누구든지 할 수 있다. 누구든지 능력을 나타낼 수 있다. 기문을 다 살릴 수 있는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라. 복음소식을 암송하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소식 안에 있는 축복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라. 히11:6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상 주시는 분이시다.

(2) 꼭 필요한 것이 있다. 예수님은 제일 먼저 하신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이었다. 회개하는 깊이만큼 신앙이 달라진다. 잘못을 했는데도 반성하지 않으면 성장이 없다. 계속 무뎌진다. 작은 것을 가지고도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데 놓친 것을 회개해야 한다. 죄 많이 지은 사람일수록 반성 안 한다. 작은 것 가지고도 진실하게 회개하고 반성해야 한다. 왜냐? 우리가 이미 해결을 받았기 때문이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수록, 주님의 은혜와 복음의 가치가 더 풍성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는 주로 손가락질만 하지, 반성하지 않는다. 우리가 작은 실수만 해도 복음에 얼마나 장애가 되는가. 사명이 클수록 반성해야 한다. 대통령의 실수와 동장의 실수는 다르다. 우리는 세계를 살릴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런데 행동이 왜 저러냐 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받은 게 다르기 때문이다. 가치를 이해하라.

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했다. 이런 의인이 되시기를 축원한다.

② 능력 중의 가장 큰 능력이 성결이다. 야고보서는 다 율법인 것처럼 보이는데, 마지막에 엘리야 이야기를 한다. 우리가 현장에서 정말 능력을 나타내려면 앞 부분이 필요하다. 우리 삶이 자연스럽게 성화된 모습일 때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실 수 있다. 계속 죄 짓고 실수하고 잘못하는데 어떻게 능력이 나타나겠는가. 야고보서 전체 흐름 속에서 엘리야 이야기가 나온 것이다. 능력 중의 가장 큰 능력이 성결이고,

③ 성령충만 중의 충만이 죄를 벗는 것이다. 말씀의 능력이다. 되리라고 했다. 복음을 알면 서서히 되어질 것이다. 이것이 누려져야 한다.

④ 죄는 모든 문제의 원인이고 모든 멸망을 초래하는 것이다.

⑤ 죄는 사단이 활동할 수 있는 곳이다.

⑥ 죄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다. 근본문제 해결 때문에 나머지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체험을 해야 한다.

(3) 엘리야는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 그 어려운 환경 속에 있다면 그것을 기도로 집중적으로 바꾸시기 바란다. 어려운 환경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했는데 영적 서밋이 되고 시대를 바꾸는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고 제자를 세울 수 있는 복의 근원이 되었다. 고난, 어려움, 문제를 축복의 통로로 삼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란다. 여러분, 문제 오기 전에 미리 하나님께 집중하고 성경에 집중해서, 부정적인 것 때문에, 고생 때문에 간절해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간절해지기를 바란다.

(4) 그래서 우리는 사명자가 되어야 한다. 약5:19-20에 중요한 이야기가 나온다. 여러분이 미혹된 길에 있는 죄인을 돌아서게 하는 축복을 받으라. 돌아서게 하는 자는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다. 삶을 변화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이 우리다. 이것이 전도자의 삶이다. 그래서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라. 나머지는 되게 되어 있다. 복음의 역사가 정확하게 내 것이 될 때까지 찾고 발견하고 누리시기 바란다.

2. 적용

(1) 장로님들이, 우리 모두가, 내가 가지고 있는 불신앙을 찾아야 한다. 우리는 입을 열면 다 불신앙이다. 그런 말을 들으면 응답받기 어렵겠다는 생각밖에 안 든다. 램넛트 속에 있는 불신앙을 포럼 속에서 찾아주어야 한다. 그 일을 여러분이 해 주셔야 한다. 그 응답을 받으면, 한 가지 때문에 다 바뀌게 된다. 불신앙에 걸려 있는 사람을 풀어주어야 한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영생의 길을 막아버리는 불신앙의 통로를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

(2) 유희를 이겨야 한다. 계속 24시간 현장 속에, 말씀 속에 있으면, 25시와 영원에 이르기까지 복을 받는, 죄와 상관없는 체질이 되는 것이다. 램넛트들이 여기 있으면 딴 짓은 안 하지 않나? 졸더라도. (웃음) 그래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 계속 하나되면 유희를 이길 수 있다. 복음공동체가 되어야 유희도 죄도 세상도 이기게 된다. 우리가 성공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세상을 이기고 정복하기 위해서이다.

(3) 나태함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구체적으로 해야 한다. 기도수첩을 하면서 오늘의 스케줄을 구체화하고, 기도제목과 목표를 구체적으로 잡아서 기도하고 실천해야 한다. 그럴 때 나태함이 조금씩 없어진다. 왜 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자꾸 잊어버린다. 그래서 정시기도를 할 수 있도록 기도제목을 뽑아서 드릴 것이다. 자기 기도제목을 뽑아서 드릴 것이다. 시간을 낭비해서는 3천 제자, 세계복음화, 할 수가 없다. 그러이 준비되어야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것이다.

결론

결론을 내리겠다. 우리는 엘리야와 같은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표를 다시 한 번 목상하시기 바란다. 나에게 주신 목표를 구체화하시기 바란다. 교회에 주신 목표와 사명을 생각하면서,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렇게 언제 응답을 받았다, 교회가 그 응답을 받았다’ 하게 되어야지, ‘나는 반대만 하다가 끝났는데 어느 새 헌당이 되어 버리고 끝났네?’ 하게 되면 안 된다. 여러분이 주역이 되고 선봉군이 되어야 한다. 엘리야처럼 나라와 시대를 구할 만큼 믿음의 사람이 되고 응답의 주역이 되시기를 바란다.